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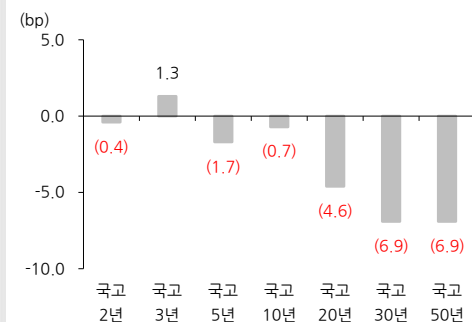
한화 FI Weekly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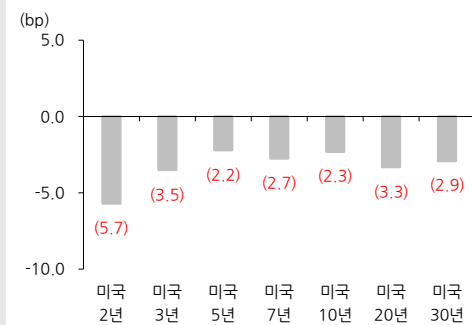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국이 혼란해도 시장은 잠잠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은 3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약 두 달. 동 시기 전후 국고채 금리 흐름에 큰 변화는 없었음. 정치공방보다는 당시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고,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금리가 크게 하락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은 12월 3일(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다음해 3월 10일(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까지 세 달 정도. 이 때는 탄핵 직전 금리가 크게 상승했는데, 시장 약세는 국내 정치재료가 아닌 해외 이슈, 트럼프 당선에 기인. 당시 국내외 금리 궤적을 그려보면 대부분 국가 금리는 11월 6일 트럼프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

이번 계엄 사태 다음 날 시장은 우려 대비 평온했음. 장 초반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순매도했지만 장중 축소되기도 했고, 10년 국채 선물은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순매수세 유지. 국고채 금리는 장중 하락하기도 하는 등 간밤의 사태 여파는 제한적

이벤트가 시스템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

정치적 충격이 시장이나 국가 신인도에도 충격을 주려면 1) 사건이 그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 바깥에서 발생하거나, 2) 재정과 경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해야 함. 계엄도, 탄핵도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규정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한이 있고, 국회는 탄핵할 수 있음

그나마 비슷한 상황인 프랑스의 경우 1번 항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그들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예산안. 재정이 쪼여 있으니 금리 상승은 불가피. 예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역시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보다 연방정부 섀utdown, 부채한도 협상 난항 같은 재정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자위권 행사를 넘어선, '시스템' 범위 밖에서 진행 중. 전쟁 지속으로 국가 경제, 재정 소모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조정되었고, 시장이 최근에서야 간신히 진정.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미국, 이스라엘과 다른 케이스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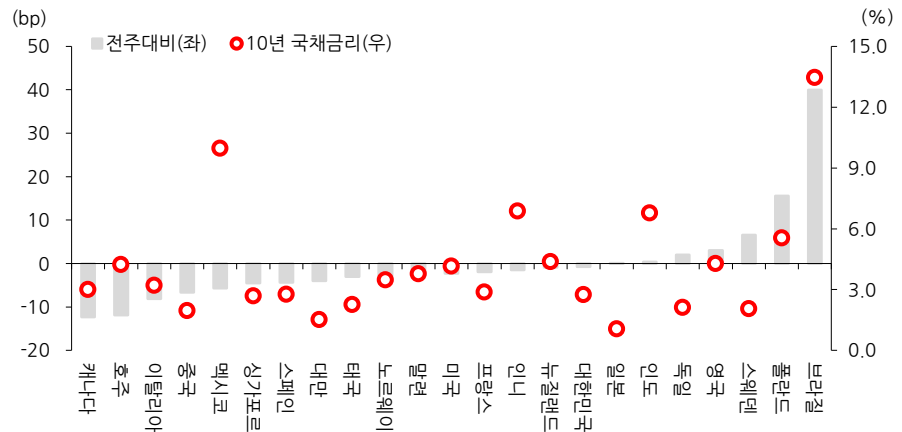
글로벌 국채 금리
대부분 하락

지난주 대부분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특별한 공통적인 강세 재료는 없었다. 국가별 내부 이슈에 연동된 장세를 보였다. 정치적 불안으로 상승한 프랑스 금리는 소폭 하락했고, Gilt채 금리는 영란은행 총재의 직접적인 2025년 4차례 인하 예상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미국 10년 금리는 4.20% 부근에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 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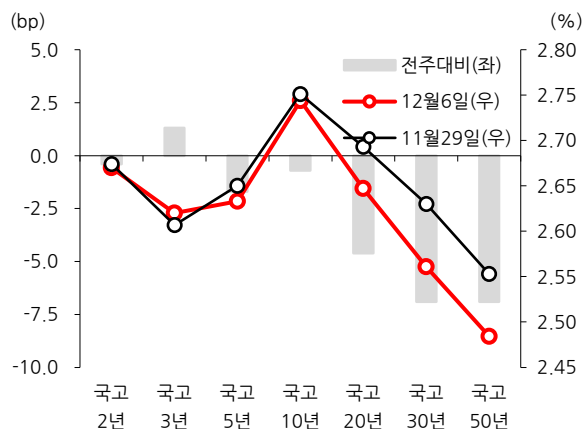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는 보합세를 보였다. 11월 금통위 이후 금리가 크게 하락, 추가 강세 여력은 크지 않지만 시장의 뚜렷한 약세 재료도 부재한 모습이다. 방향성이 부재한 장세를 시현했다. 정국 혼란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1.3bp 상승, 0.7bp 하락한 2.67%, 2.74%를 기록했다.

[그림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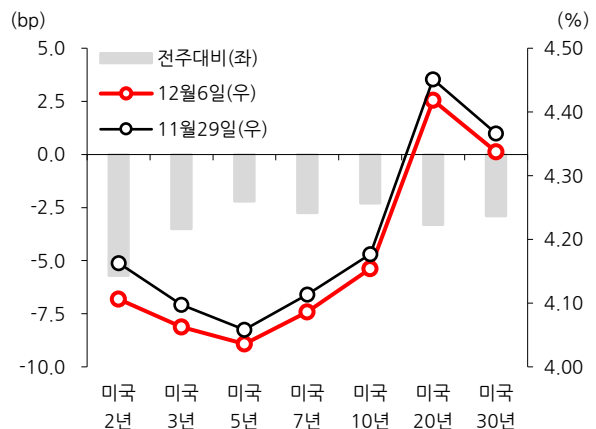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채권시장 전망

1.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

과거 사례를 보면
정국혼란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같은 밤을 겪었고, 같은 여의도지만 서여의도와 동여의도의 분위기는 달랐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 준할 만큼 충격이 컸던 이전 사례는 2004년과 2016년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있다. 과거 이벤트의 전개 양상과 그 당시 시장 금리 흐름을 통해 앞으로의 장세를 예상해보았다. 결론은 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04년 노무현,
기준금리 인하에 주목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은 3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약 두 달간 이어졌다. 이 시기 전후 국고채 금리 흐름에 큰 변화는 없었다. 정치공방보다는 당시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고,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2016년 박근혜,
트럼프 당선이
시장을 지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은 12월 3일(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다음해 3월 10일(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까지 세 달 정도였다. 이 때는 탄핵 직전 금리가 크게 상승했는데, 시장 약세는 국내 정치재료가 아닌 해외 이슈, 트럼프 당선에 기인했다. 당시 국내외 금리 궤적을 그려보면 대부분 국가 금리는 11월 6일 트럼프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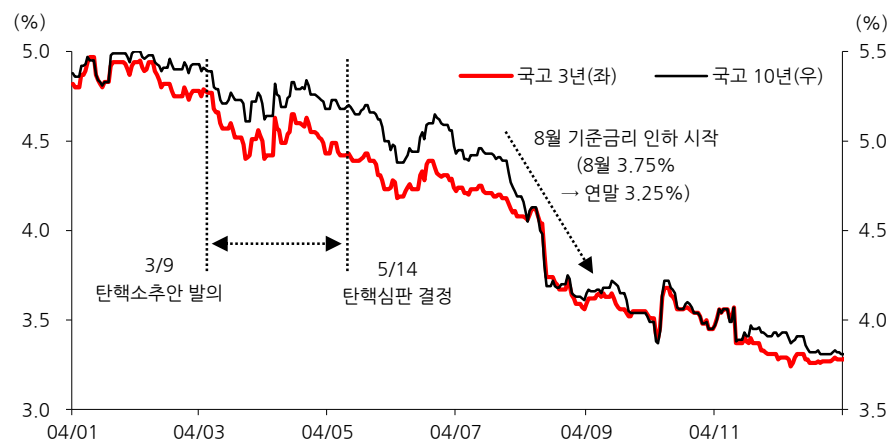
2024년 계엄,
당일 시장 반응은
크지 않았음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기의 초반부이고, 이 난국이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계엄 사태 다음 날 시장은 우려보다 평온했다. 장 초반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순매도했지만 장중 축소되기도 했고, 10년 국채 선물은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국고채 금리는 장중 하락하기도 하는 등 간밤의 사태 여파는 크지 않았다.

정치적 이벤트는
1) 국가의 '시스템' 바깥에서
발생하거나

직전 코멘트 자료에서 설명했듯 정치적 충격이 시장이나 국가 신인도에도 충격을 주려면 1) 사건이 그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 바깥에서 발생하거나, 2) 재정과 경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계엄도, 탄핵도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규정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한이 있고,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그림4]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전후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재정과 경제가 영향받아야 시장에 파급

한국은 프랑스와 미국,
이스라엘과 다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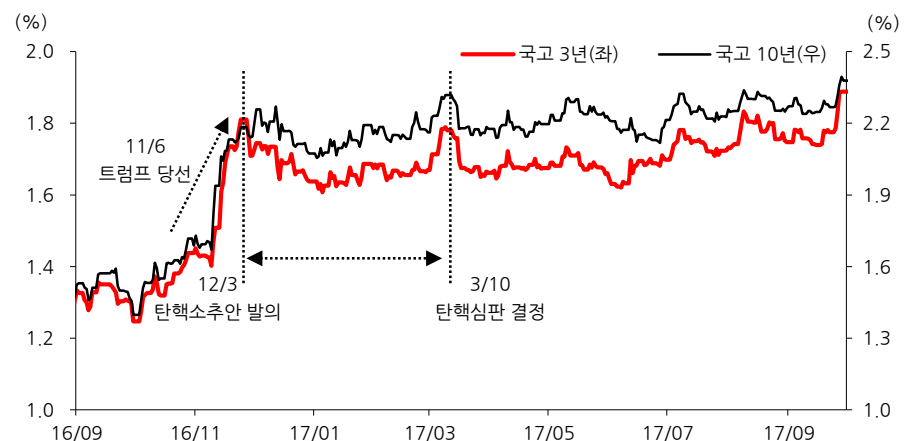
국고 3년: 2.60~2.70%
국고 10년: 2.70~2.78%

그나마 비슷한 상황인 프랑스의 경우 1번 항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그들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예산안이다. 재정이 엮여 있으니 금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 예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역시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보다 연방정부 쪼들, 부채한도 협상 난항 같은 재정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자위권 행사를 넘어선, '시스템' 범위 밖에서 진행 중이다. 전쟁 지속으로 국가 경제, 재정 소모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조정되었고, 최근에서야 시장이 간신히 진정되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미국, 이스라엘과 다른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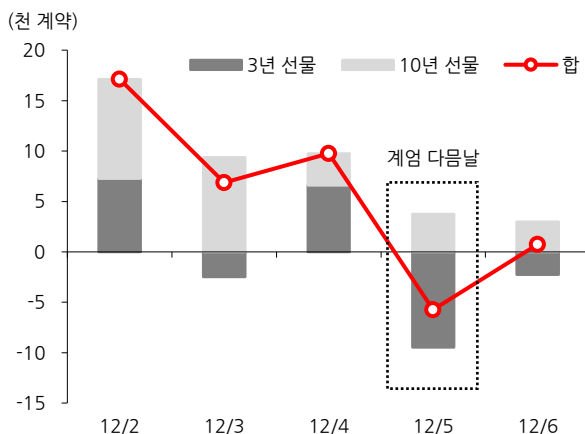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2.60~2.70%, 2.70~2.78%를 제시한다. 미국 11월 물가지표(11일), ECB의 통화정책회의(12일)가 시장의 주된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 물가는 소폭 반등을 반영 중이고, ECB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유화적인 정책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강보합 흐름을 예상한다.

[그림5]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전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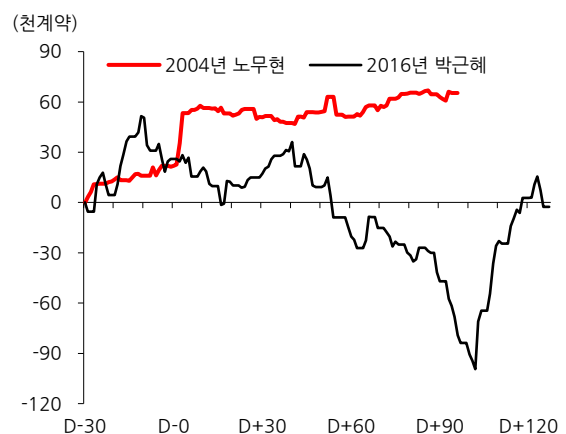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계엄령 전후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량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과거 탄핵정국 외국인 국채 선물 누적 순매수량 추이



주: D-0=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마지막 일자=현재 탄핵심판 결정 이후 30일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통화정책 관련 당국자 발언 주요 내용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2/3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는 경제가 둔화되고(cooling),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도 약화(continues to diminish) 중임을 보여줌 - 물가는 경로가 울퉁불퉁할 뿐 둔화세는 지속. 본인의 기본 전망은 인플레이션이 2%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 고용시장에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질서있게 둔화 중 - 물가와 고용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잡힌 편. 중립 통화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 - 여전히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와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음(it is still an open question how fast and how much rates need to be cut) - 12월 FOMC 정책결정은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보고 내릴 것 - 기업들 상황을 보면 강한 고용 수요는 부재하고, 고용시장 약화 전망은 존재 - 여전히 통화정책은 긴축적이라고 판단 - 미국 경제는 목표 수준 부근까지 둔화된 물가, 완전 고용에 근접한 고용상황 하에서도 강력함 - 관세 등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음. 전개 양상에 따라 통화정책도 조정될 것
12/3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데이터들은 물가상승률이 2%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곳에서 멈춰있음을 시사 - 물가의 상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과잉 대응은 경계할 필요 - 고용시장은 마침내 균형을 찾았음(finally in balance). 이 수준을 유지해 나가야 함 - 수익률 곡선 역전이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합리적인 시장 기대(for good reasons)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
12/3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제는 준수(good place)하고 고용 시장은 강력함을 유지하면서도 균형잡힌 모습 - 향후 물가 진전은 불규칙하게(uneven) 진행될 수 있음 - 본인의 2024년 물가전망치는 2.4%. 경제성장률은 2.5%를 전망하나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존재. 실업률은 앞으로 몇 달간 4.00~4.25% 예상 - 통화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영 중. 현재 정책은 긴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고용시장이 다시 한번 물가 자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 - 인플레이션은 2% 부근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 -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overall trend of rates coming down)
12/3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 가격 상승에 기인 - 최근 환율이 상승했지만 파급 시차 등을 고려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 - 향후 물가는 기저효과와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2%에 근접할 것 - 근원물가는 현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12/4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제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really good place) - 12월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한 선택지 중 하나(absolutely not off the table) - 당장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논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인하는 계속되어야 함 - 고용은 완전한 균형상태(completely in balance).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 아님 - 인플레이션 경로가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 그러나 점진적인 둔화세 유지도 마찬가지 -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더라도 정책은 제약적인 수준 - 무역 이슈가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 - 중립금리는 3% 부근으로 추정 -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2/4	Adriana Kugler (연준 이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연준의 정책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곳에 위치 - 지금까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제약적인 정책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함이었음 - 차기 정부 정책은 물가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판단은 시기상조 - 10월 PCE는 물가가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음을 시사 - 생산성 향상, 이민자 증가가 강력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작용 - 경제는 견조(good position)하고 고용은 강력(solid)하며, 물가는 2% 복귀 경로에 위치 - 정책 운영에는 경해진 것이 없음. 회의 때마다 상황을 보며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 - 11월 고용지표도 태풍과 파업 영향권 - 지금은 완전고용 상황이지만 이민과 무역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
12/4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지표들은 변동성이 큼. 개인적으로 주거 부문 물가를 유심히 지켜보는 중
12/5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영란은행의 금리 전망에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음(emphasised the word gradual on outlook for rates)를 주목할 필요 - 2025년 기준금리는 4차례 인하 예상 - 디스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음 - 정부 예산안은 긴축적. 핵심은 근로자들의 의료보험(national insurance) 인상 -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 트럼프 정부 관련 여파도 아직은 예상할 수 없음 -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함. 현재 성장률은 잠재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음
12/5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성장세 약화 전망. 중기적으로도 경제와 물가 모두 하방 압력이 우세. 유로존은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 - 4분기 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 예상. 그러나 물가 관련 전쟁은 종료가 목전(nearing completion) - 기준금리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음
12/5	Alberto Musalem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또는 일시 중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정책 완화는 필요 - 물가는 향후 2년 내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고용과 성장은 완만하게 둔화(moderation)될 것 -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여러 통화정책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 - 고용은 더 이상 과열 국면도, 물가 자극 요인도 아님. 현재 고용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 - 통화정책은 적절한 수준에 위치. 적절하게(moderately) 긴축적. 긴축 통화정책이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물가는 여전히 목표 레벨을 상회 중. 상승 속도만큼 둔화되지도 않을 것. 다만, 고용 관련 우려는 감소
12/5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양대 책무 달성 관련 긍정적인 요인과 리스크 모두 존재. 10월 고용지표를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을뿐더러 물가는 여전히 2% 위에 위치 - 물가 흐름은 긍정적. 주거 물가도 시차를 두고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당분간은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필요. 만약 2025년 1분기 물가가 반등한다면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일 것
12/5	Jerome Powell (연준 의장)	비둘기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독립성은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음. 관련 위협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것 - 미국 경제는 대단히 긍정적(remarkably good shape). 견조한 흐름이 끊임 요인도 부재 - 현재 통화정책은 상당히 만족스러운(feel very good) 수준. 지금까지 연준은 기민하게 금리를 조정해왔음 -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으며 물가는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중. 냉각 위험도 감소 - 관세의 영향을 가능하는 모델을 개발 중 - 물가를 자극시키지도, 고용을 훼손시키지도 않는 정책 수준을 찾는데 노력할 것 - 현재 미국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할 수 없음. 수입과 지출 모두 조정되어야 함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2/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 사태가 성장 경로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았음. 새로운 정보가 부재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전망의 경로를 바꿀 이유가 없음 - 오히려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수출 모멘텀, 경쟁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 -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될 수 있음 - 계엄으로 인해 상승한 환율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내려갈 것. 관계당국이 유동성 공급 등 안정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상황.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할 전망 - 정치적 이슈는 경제 펀더멘털 문제와 완전히 분리되었음. 신인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
12/6	Michelle Bowman (연준 이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견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님(doesn't take a dissenting vote on policy lightly) - 물가는 정책 운영에 있어 최우선시되는 고려 요인. 연준은 아직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지금까지 물가 안정, 고용의 과열 완화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경제는 매우 강력. 현재 경제를 보면 통화정책이 진정 긴축적인 수준인지 의문이 들게 함 - 지나치게 빠른 기준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경제를 과열시킬 가능성 - 본인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인하를 선호(cautiously and gradually) - 고용은 완전고용 상태에 근접 - 근원물가는 2% 목표를 상회함은 물론, 불편한 레벨에 위치. 물가의 상방 압력은 지금도 명백히 존재 - 물가 관련 진전이 주춤한 모습(seems to have stalled)
12/7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7만명이라는 신규 고용은 매우 큰 숫자. 그러나 추세에 집중할 필요(need to look at averages) - 추세를 보면, 고용시장은 과열 국면을 통과, 지속가능한 정도의 완전고용 상태에 위치. 연준은 이 수준을 유지시키고 싶음 - 최근 몇 달간 고용지표는 지속가능하면서도 완전고용에 근접.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 유흥 일자리와 고용자 수 비율은 현재 고용시장이 균형잡힌 상태라는 것을 보여줌 - 향후 이민추세의 변화는 노동력 공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very significant impact) - 물가는 소폭 반등(inched up a bit)한 것으로 보이나 2% 복귀 경로를 벗어나지는 않았음. 물가 관련 진전은 지금도 긍정적 - 12월 FOMC 관련 결정된 것은 없음. 추가적인 소비와 물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함 -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할 수 있는 여러 회의들을 앞두고 있음 - 앞으로 경제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년에도 기준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음. 2025년 말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꽤나 낮은(a fair bit lower) 수준일 것 - 최근 생산성 향상은 기술집약적 산업에 집중 - 연준은 2%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목표 수준을 바꾸지 않을 것 - 소비자 연체율은 역사적 수준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님 - 주거 물가는 둔화될 것. 정부 데이터에 시차가 있을 뿐 민간 데이터는 둔화가 진행 중 - 의화와 정부가 관세 정책을 시행한다면 연준은 바뀐 상황에 기초해 대응해 나갈 것 - 경제 환경이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 - 통화정책의 시차, 중립금리 부근에 도달했다는 시그널들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음 - 상품 물가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 물가는 올바를 방향으로 계속해서 복귀할 것. 주거 물가는 개선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2/7	Beth Hammack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까지 한 차례 인하를 반영한 시장은 합리적 - 12월 FOMC 결정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회의 전까지 데이터들을 확인할 필요 - 경제는 완만한 통화정책 조정을 필요로 함. 현재 정책은 긴축적(somewhat restrictive) - 가까운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 인하 속도 조절은 연준에게 경기 흐름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 - 견조한 경제 성장(solid growth), 낮은 실업률(low unemployment), 점진적인 물가 둔화(gradual inflation ebbing) 흐름을 예상 - 현재 경제는 강력하고 고용도 준수한 상황. 고용은 이전 대비 더 나은 균형을 찾았음 -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해야할 일이 남아있음 - 관세의 여파를 가능하는 것은 시기상조 - 미국 부채증가세는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님. 다만, 통화정책은 부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 - 소비부문이 경제를 강력하게 지탱. 가계 대차대조표도 견조한 편 - 주거 물가 안정까지는 긴 시간 소요 전망. 주택과 부동산 문제를 면밀히 관찰 중
12/7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가 반등한다면 기준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ready to raise rates) - 새로운 정부의 정책들을 예단해서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 정책의 여파를 보고 판단할 예정 -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는 과거 대비 매우 악화 - 물가는 2%에 근접해 있고, 고용은 균형을 찾았음 - 본인은 연준이 적정 기준금리를 찾기 위해서 점진적인 인하에 찬성 - 물가가 언제 목표 수준으로 돌아갈지, 고용이 견조한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그렇기에 정책은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함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9	10	11	12	13
(한국) 국고 3년 입찰(2,000 억원) (유로존) 12월 섀넥스 투자자신뢰지수 (전월:-12.8, 전년:-18.5) (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 (중국) 11월 CPI, Core CPI (CPI 전월바:-0.3%, 전년바:0.3%) (Core 전월바:0.0%, 전년바:0.2%) 11월 PPI (전월바:-0.1%, -2.9%)	호주 RBA Reserve Bank Board Meeting (한국) 국고 2년 입찰(1,000 억원) (미국) 11월 뉴욕 연은 1년 기대인플레이션 (전월:2.87%, 전년:3.36%) 11월 NFB 중소기업 낙관지수 (예상:94.1, 전월:93.7, 전년:90.6) (중국) 11월 수출입(위안화) (수출 전월바:1.2%, 전년바:11.2%) (수입 전월바:-4.5%, 전년바:-3.7%)	(한국) 11월 실업률 (전월:2.7%, 전년:2.8%) (미국) 3년 국채 입찰 (4.15%, 간접:70.6%, 응찰률:2.60배) 11월 CPI, Core CPI (CPI 예상 전월바:0.2%, 전년바:2.7%) (Core 예상 전월바:0.3%, 전년바:3.2%) (CPI 전월바:0.2%, 전년바:2.6%) (Core 전월바:0.3%, 전년바:3.3%)	브라질 BCB COPOM 유로존 ECB Governing Council Meeting (미국) 10년 국채 입찰 (4.35%, 간접:61.7%, 응찰률:2.58배) 11월 PPI (예상(m):0.3%, 전월바:0.2%, 전년바:2.4%)	(한국) 국고 50년 입찰(1,000 억원) 11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바:1.7%, 전년바:2.0%) (수입 전월바:2.2%, 전년바:-2.5%) (미국) 30년 국채 입찰 (4.61%, 간접:62.7%, 응찰률:2.64배) 11월 수출입물가 (예상(m) 수출:-0.3%, 수입:-0.3%) (수출 전월바:0.8%, 전년바:-0.1%) (수입 전월바:0.3%, 전년바:0.8%) (유로존) 10월 산업생산 (전월바:-2.0%, 전년바:-2.8%) (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
16	17	18	19	20
Lagarde ECB 총재 연설 (한국) 국고 10년 입찰(2,000 억원) 10월 M2 통화공급 (전월바:0.2%, 전년바:5.9%) (미국) 12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전월:31.2, 전년:-14.5) (중국) 11월 산업생산 (예상(y):5.5%, 전월바:0.4%, 전년바:5.3%) 11월 소매판매 (예상(y):5.0%, 전월바:0.4%, 전년바:4.8%)	한국은행 금융위 의사록 (미국) 11월 소매판매 (전월바:0.4%, 전년바:2.8%) 11월 산업생산 (전월바:-0.3%, 전년바:-0.3%) (유로존) 12월 ZEW 경기전망지수 (전월:12.5, 전년:23.0)	(한국) 국고 3년 입찰(8,000 억원) (미국) 20년 국채 입찰 (4.68%, 간접:69.5%, 응찰률:2.34배) 12월 NAHB 주택시정지수 (전월:46.0, 전년:37.0) 11월 건축허가 (전월바:-0.4%, 전년바:-7.5%) 11월 주택착공 (전월바:-3.1%, 전년바:-4.0%) (유로존) 11월 CPI, Core CPI (CPI 전월바:-0.3%, 전년바:2.0%) (Core 전월바:-0.6%, 전년바:2.7%)	미국 연준 FOMC 영국 영안은행 Monetary Policy Committee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미국) 3분기 GDP(수정) (전기비연율:2.8%)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전월:+370억 €, 전년:+209억 €)	(한국) 11월 PPI (전월바:-0.1%, 전년바:1.0%) (미국) 11월 섀넥지수 (전월바:-0.4%, 전년바:-4.1%) 11월 기준주택 판매 (전월바:3.4%, 전년바:2.9%) 12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2.0, 전년:-1.0) 11월 PCE, Core PCE (PCE 전월바:0.2%, 전년바:2.3%) (Core 전월바:0.3%, 전년바:2.8%) 12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확정) (전월:71.8, 전년:69.7) (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